

#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날짜 : 2026년 5월 19일(화) / • 문의 : 대책위 언론팀 박다솔(010-7236-3011) <총 8쪽>

## [보도자료]

### 김충현 사망사고 1년, 발전소 노동자들은 여전히 위험하고 불안하다.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약체 합의이행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6년 5월 19일(화) 10시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 취지

- 고 김충현 노동자가 중대재해로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하여 수많은 정치인들이 위험의 외주화가 그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음.
- 2025년 8월 28일에는 태안화력발전소 한전KPS비정규직지회 조합원 다수가 불법파견 판정을 받았으며 고용노동부도 이를 인정하고 불법파견을 근로감독에서 지적했음. 결국 이재명 정부가 설치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약체>에서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기로 합의함. 구체적으로는 노사전문가협약체(이하 노사전협약체)를 구성하여 2026년 3월 31일까지 논의하고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함.
- 그러나 이재명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한전KPS비정규직 직접고용을 다룰 노사전협약체마저 구성되고 있지 못한 상황임.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그것도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한 시점이 10일 남은 시점까지 노사전협약체를 구성하고 있지 못한 것을 규탄하고자 함.

#### ○ 기자회견 순서

사회: 박준선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순서	발언자
추모묵념	
발언1. 규탄발언	김충현 대책위 공동대표 양한웅
발언2. 규탄발언	공공운수노조 강성규 부위원장
발언3. 규탄발언	김충현 협약체 전주희 위원
발언4. 규탄발언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 정철희
기자회견문 낭독	

## [기자회견문]

고 김충현 노동자와의 약속이다.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회 합의를 지켜라!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

고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1년이 되어간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다. '비정규직을 위한다'고 말하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고 말만 내세우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도대체 몇 번을 하는 것인지 모를 지경이다.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을 때만 하더라도 분향소를 찾아와서 김용균 사고 이후 또다시 사고가 났다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정치인들이 몇 명이었는가!

한전KPS비정규직 동지들이 서울로 올라와서 김충현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나서야 <발전사업 고용안정 협의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2025년 8월 28일 서울지방법원은 한전KPS가 고용했어야 한다며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직접고용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이 난 후 우리들은 한전KPS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설움이 건힐 줄 알았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가 구성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회>에서 합의를 했다.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에 따른 노동자 전원을 직접고용하고, 전환 대상 시점은 2025년 6월 2일로 한다고 합의했다. 한전KPS에 동종, 유사업무가 있는 경우 해당 직제를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뿐만 아니라 한전KPS협력업체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화력분야는 2026년 4월 30일까지 노사전협의회 협의를 완료하고 직접고용을 5월 31일까지 완료하기로 했다.

그런데 직접고용 전환을 논의할 노사전 협의회마저 구성되고 있지 않다. 한전KPS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이다. 공공기관은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는가! 사람이 죽어나가 그 대책으로 위험을 외주화시킨 것이 잘못이어서 그렇다고, 게다가 법원도 직접고용했어야 한다고 판결을 하지 않았는가! 대체 무엇을 더 필요하단 말인가!

오늘은 김충현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지 352일째다. 그리고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지 9개월째다. 우리는 김충현 노동자 1주기를 앞두고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위해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 우리는 김충현 노동자가 그토록 염원하던 살맛 나는 세상을 만들어 갈 것이다.

김충현의 염원이다. 한전KPS직접고용 이행하라!

김충현과의 약속이다. 이재명 정부는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회 합의를 이행하라!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발언문] 양한웅 김충현 대책위 공동대표

이 문제로 청와대 앞에 여러 번 왔습니다. 김충현 노동자 1주기도 다가오는데 김충현 노동자 별 면목이 없습니다. 그리고 함께 일했던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한테도 정말 면목이 없고 대책위 입장에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에서 정한, 5월 말까지 고용 문제를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시한이 며칠 안 남지 않습니까? 그리고 곧 이어서 며칠 후에 김충현 노동자의 1주기가 있고요.

저는 청와대 앞에서 저는 이재명 정부한테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김충현 노동자 사망 직후에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비서실장이 가족을 만나고 노동자를 만나서 눈물 흘리며 꼭 약속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했던 그 목소리는 저희들만 본 것이 아니라 전 국민이 지켜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그 목소리마저 생생하게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내란을 물리치고 국민주권 정부라는 이재명 정부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하나의 의무입니다. 그냥 걸으려는 울고, 이렇게 하겠다는 약속을 안 지키다면 대한민국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주가 지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한다고 대한민국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까?

공기업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고, 엉뚱한 노조를 핑계댄다면 저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우리 KPS 우리 하청 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저희들이 다른 노조를 한전KPS를 설득해야 됩니까? 정부의 몫입니다. 정부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정부가 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의를 수십 번 열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본인이 했던 약속, 비서실장이 했던 약속을 1주기에 앞서 반드시 실행에 옮기기를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발언문] 강성규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강성규입니다.

작년 6월 고 김충현 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재로 목숨을 잃은 지 딱 1년입니다. 우리는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대체 정부의 약속과 합의가 있었지만 발전소 현장은 변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김충현 분향소를 찾아와서 김용근 사고 이후 또다시 사고가 났다고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정치인들이 셀 수 없이 많지만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발전산업 고용·안전협의체에서 합의를 해도 법원이 직접 고용을 판결해도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직접고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고용 시한을 안 지킨 것뿐만 아니라 직접고용 전환을 논의할 노사전협의체도 아직 구성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은 모범적인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험을 외주화 시킨 것이 잘못이라고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도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얼마나 죽어야 한단 말입니까?

이제 김충현 노동자가 우리 곁을 떠난 지 1년 다 되어 갑니다. 우리는 김충현 노동자가 그토록 염원 하던 살맛 나는 세상을 1주기 추모 재단에 바치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충현 노동자의 동료들인, 한전KPS 하청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지금 당장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문] 전주희(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간사)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살리는 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제 역할을 하십시오.

김충현이 사망한지 1년이 다 되어서 새삼스럽게 김충현의 죽음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봅니다. 김충현과 같은 하청노동자, 2차 하청노동자의 죽음이 한국사회에서 무엇입니까? 그가 죽었을 때 이 땅의 국무총리와 국회의장, 내로라하는 국회의원들, 고용노동부의 고위관료들, 지역의 오래된 유지들이 장례식장 문턱을 넘었습니다. 그가 사망한 장소, 사망한 작업대를 취재하지 않은 언론들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대통령의 비서실장이 직접 김충현 대책위의 요구안을 받았습시다. 울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 이재명 정부는 김충현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김충현의 이름을 건,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 지난 2월 10일 내놓은 합의 결과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합의 이행을 하지 않고 침묵하는 시간, 하청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실행하지 않은 그 시간은 김충현의 죽음을 가볍게 만들고 지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우리 정부는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까?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정부’는 지금껏 없었습니다. 이재명 정부 역시도 그렇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는 살아있는 사람들의 입으로 말해집니다. 산 사람이야말로 이 정부가 죽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김충현의 죽음을 어떻게 대하는지, 김충현의 가족들과 그 동료들이 가장 충실한 목격자입니다.

김충현의 장례식에 온 그 누구도, 김충현의 협의체를 이끈 김민석 국무총리도 김충현의 죽음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김충현의 동료들에게 위로를 건네고 그들의 슬픔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충현 협의체의 합의가 흔들리는 동안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목숨을 살리는 정부’가 되려면 노동자의 죽음을 정치적으로만 활용하지 마시고, 정치의 대상으로 끈질기게 소환하고 다뤄야 합니다.

김충현의 1주기, 발전소 하청노동자들의 직접고용에 대해 정부가 합의한 만큼, 그만큼만 이행하십시오. 푸닥거리하듯이, 어설픈 절충적으로 조정할 생각일랑 아예 하지 마십시오. 하청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곧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권을 회복하는 과정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원칙이 흔들리는 정규직 전환은 여전히 시혜적이고 여전히 차별적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책임지십시오. 이 나라의 대통령이라서가 아니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에 그 누구보다 가장 많은 말을 한 정치인으로서, 그 무게를 감당하십시오. 김충현의 죽음에 대해, 위험의 외주화에 대해, 비정규직 노동자의 차별에 대해, 할 일을 하십시오. 우리가, 김충현의 동료들이, 노동·사회 단체들이 우리들의 목숨을 살리는 투쟁을 하는 것처럼 이 정부도 해야 할 일을 더 늦지 않게 해내세요.

## [발언문] 정철희 공공운수노조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

안녕하십니까. 한전KPS비정규직지회 태안분회장 정철희입니다.

태안화력에서 또 한 명의 소중한 동료 고 김충현 동지를 기계팀에서 떠나 보낸 지 어느덧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김용균을 잃고 ‘더 이상 죽지 않게 하겠다’ ‘위험의 외주화를 끝내겠다’는 국가와 기업의 약속은 7년이 지난 지금 또다시 기만적인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수년간 발전소가 말한 안전, 조직 문화 개선은 도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현장은 단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고, 안전은 오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대가는 고스란히 우리 하청 노동자들의 목숨이었습니다.

2차 하청 노동자들은 여전히 안전 울타리 밖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먼지 가득한 현장에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 이 거대하고 기형적인 다단계 하청구조가 결국 김충현이라는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조차 한전 KPS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불법 파견을 인정했습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설치한 발전산업고용안전협의체에서 우리를 직접 고용하라고 합의했고, 그 완료 기한이 이제 딱 10일 남았습니다.

오는 5월 31일까지 직접고용을 완료하기로 분명 약속해 놓고, 정작 이를 논의해야 할 노사정 협의체는 한전 KPS의 노골적인 방해와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 속에 구성조차 되지 못한 채 멈춰 서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회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김충현 동지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위험의 외주화를 끝낼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정규직 전환 논의 자체를 아예 봉쇄하고 뭉개버리겠다는 비겁한 속셈입니다.

지금 태안화력 현장은 긴박합니다. 이미 1호기는 폐쇄되었고, 이제 2호기마저 가동 중단을 앞두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창한 말 속에 기계는 하나둘씩 멈추고 있지만, 정작 현장 노동자들에게 했던 약속은 단 하나도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잘릴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과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일터의 위험 속에서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심정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발전소가 완전히 문을 닫는 순간까지 우리는 그저 쓰고 버려지는 소모품이어야 합니까?

한전 KPS와 서부발전, 그리고 정부에 똑똑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기만적인 책임 회피와 시간 끌기로 우리 노동자를 기만하지 마십시오. 노사전협의체 방해를 당장 중단하고 남은 10일 동안 정규직 전환 합의를 조건 없이 이행하십시오. 멈춰버린 정규직 전환의 시간을 다시 돌리고, 노동자가 죽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진짜 일터를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떠나간 김충현 동지 앞에서 지킬 수 있는 최소한의 상식이자 도리입니다. 더 이상 외주화된 위험 앞에 우리 동료들이 무력하게 내몰리지 않게 끝까지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자료] 빛을 만드는 노동자, 김충현 1주기 추모제 일정

### ● 빛을 만드는 노동자 고 김충현 노동자 추모 주간

- (기간) 5.27.(수) ~ 6.2.(화)

### ● 빛을 만드는 노동자 고 김충현 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 (일시) 5.27.(수) 11:00

- (장소) 청와대 분수대 앞

### ● 추모주간 사업

#### ① <김충현 중대재해 1년, 현장은 바뀌었나?> 토론회 및 현장사진전

- (일시) 5.28.(목) 14:00

- (장소)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 한전KPS비정규직 동지들과 김충현 대책위 동지들의 투쟁사진 게시

- (주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취지) 태안화력발전소 하청노동자 고 김충현의 1주기를 앞두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발전소 하청구조와 위험의 외주화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함. '김충현 협의체' 합의 이후 합의 이행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정부 책임을 다시 확인하고 조속한 이행을 사회적으로 확인하고자 함.

#### ② 빛을 만드는 노동자 고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 (일시) 5.30.(토) 14:00

- (장소) 보신각(→청와대 행진. 2.3K)

- (주최)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

#### ③ 김충현 노동자 납골당 참배

- (일시) 6.2.(화) 10:00

- (장소) 납골당(경북)

- (참가) 가족, 김충현 대책위 집행위원회, 한전KPS비정규직지회 간부

#### ④ 위험의 외주화 중단! 한전KPS직접고용 쟁취! 발전소 노동자 총고용 보장! 인증샷

- (기간) 5.18.(월) ~ 22.(금)

- (취합) 5월 25일(월) \* 김충현 추모제 당시 추모영상에 활용

# 빛을 만드는 노동자

추모주간

5.27.(수)

~6.2.(화)

故 김충현 1주기



5.18.(월)~5.22.(금) / 인증샷참여캠페인

"위험의외주화중단! 한전KPS직접고용 정취!  
발전소노동자총고용보장!"을 함께 요구합니다

5.27.(수) 11:00 / 청와대분수대앞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5.28.(목) 14:00 / 정동 프란치스코회관 220호

<김충현 중대재해 1년, 현장은 바뀌었나?>  
토론회 및 현장 사진전

5.30.(토) 14:00 / 종로 보신각 (청와대 행진)

<빛을 만드는 노동자 故 김충현 노동자>  
1주기 추모대회

6.2.(화) 11:00 / 남골당 참배

투쟁계좌

3333-16-3674435

카카오뱅크 박정훈

태안화력 故 김충현 비정규직노동자 사망사고 대책위원회